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Perceived by Career-interrupted Wome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 on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ook-Ja Le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ongwon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at can have effects on career based on career-interrupted women's percep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nd mediating effects of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is study surveyed 227 career-interrupted women who participated in job training or registered for job searching in woman employment support organizations using a self-reported type questionnaire. The results are presented: First,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discovered that emotional support as sub-factors of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ird, discovered that goal setting and job information as sub-factor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ourth,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ere w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results presented above suggested that in respect to career guidance for career-interrupted women, a focus should be given to psychological aspects than technological.

▶ **Key words:** career-interrupted wom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goal setting

[요 약]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여성취업지원기관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거나 구직등록을 한 경력단절여성 22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들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설정과 직업정보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시 기술적인 측면보다 심리적 측면을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 **주제어:** 경력단절여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목표설정

-
- First Author: Sook-Ja Lee, Corresponding Author: Sook-Ja Lee
 - *Sook-Ja Lee (can00044@naver.com), Dept. of Social Welfare, Songwon University
 - Received: 2019. 10. 10, Revised: 2019. 12. 21, Accepted: 2019. 12. 23.

I. Introduction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합계출산율 0.97명[1]으로 세계 최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3%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26년경에 20%가 넘는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2].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감소 현상이 야기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3]. 국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의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8%로 남성의 73.0%[1]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결혼·임신·출산·자녀양육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력단절에서 기인 된다고 볼 수 있다[4].

진로준비행동은 흥미, 적성 및 성격, 진로결정수준과 같은 인지나 태도 요인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 이후에도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을 포함한다[5]. 즉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이란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자신의 적성과 흥미, 능력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말한다[6].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은 다양한 복합적인 요소가 결부되어 있다. 비단 여성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에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7].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여부와 상관없이 욕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진로와 관련된 시에는 적극적으로 진로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8][9].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4][10][11],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7][12],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13][14]가 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경력단절여성이 인식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경력단절여성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Theoretical Background

1. Career-Interrupted Women

경력단절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일과 관련된 과정들이 중단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취업단절, 불연속 취업의 용어로도 사용된다[15]. 여성들은 남성과 다르게 생애주기에 따른 사건들에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노동시장을 이탈하기 보다는 결혼을 시작으로 임신·출산·자녀양육과 가사 등을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함으로써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즉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노동시장의 참여를 유지할 수 없어 경제활동의 중단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2조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2.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구 등의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지체계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16]. 예방 심리학이 대두된 1970년대 중반에 관심사로 등장하며 발전하게 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17][18]. 정서적 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자신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 주는 행위로써 존경, 애정, 신뢰, 배려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19]. 정보적 지지는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구직방법을 알려주는 것 등 진로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정보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물질적 지지는 현물이나 현금, 노동력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적 지지는 개인의 역할 수행과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 정보를 전달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피드백, 사회적 비교의 제공 등을 의미한다[17][18].

경력단절여성과 사회적 지지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적응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9][20]. 즉 주위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진로적응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사회적 지지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연구들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진로지도 시 사회적 지지를 고려하여야 효과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21]의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진로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 할 수 있다[6]. Bandura는 어떤 과제나 행동을 실행 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다[21].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에 대해 개인이 느끼고 있는 유능성, 효능성, 자신감 등으로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2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직업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23]. 직업정보는 관심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세부조건을 탐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목표선택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미래계획은 진로에 대한 계획과 실천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문제해결은 진로와 관련하여 난관에 봉착할 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자기평가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한 진로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과 감수해야 할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4][24].

경력단절여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적응성[25], 진로준비행동[10][26]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지면 진로적응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와 연관한 실제적인 행동차원을 의미한다. 즉 진로결정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행동들로 진로에 대한 결정이전을 포함하여 결정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 등을 모두 망라한다[5].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은 인지나 태도의 측면이 아닌 자신이 결정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진로준비행동은 정보수집활동, 도구 구비활동, 실천적 노력의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수집활동은 자신에 대한 이해(적성, 능력, 흥미 등)와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직업현황, 전망, 입직방법 등)를 탐색하는 활동이다. 도구 구비활동은 목표로 설정한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교재나 장비의 구입 및 관련 자격증 등을 취득하는 활동이다. 실천적 노력은 목표로 설정한 직업에 입직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실제적인 활동이다[5].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정체감, 진로장벽, 희망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등이 있다[27][28][29].

III. Research Design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목적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와 결과변수인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설정하였다.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으

로는 목표설정,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자기평가를, 종속변수는 진로준비행동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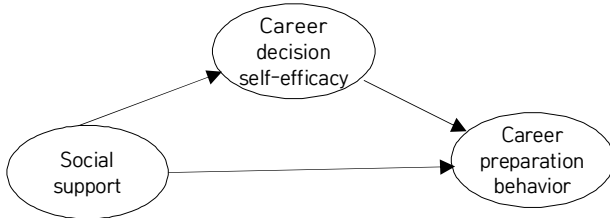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Research Problem

연구문제 1. 경력단절여성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경력단절여성이 인식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경력단절여성이 인식한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3. Measuring the Variables

3.1.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18]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11]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의 4개 하위요인과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리커트 5점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11]의 사회적 지지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8이다.

3.2.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30]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CDMSES)의 단축형인 CDMSE-SF를 [4][31]이 20문항으로 타당화 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자기평가, 목표설정, 문제해결, 미래계획, 직업정보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리커트(Likert)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많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31]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다.

3.3. Career Preparation Behavior

진로준비행동의 측정도구는 [5]이 개발한 척도를 [32]이 대학교의 진로상담센터와 인터넷 취업정보 사이트가 활성화 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2문항을 추가하여 18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를 [4]이 경력단절여성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의 내용은 경력단절여성이 수월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진로를 취업으로, 가족을 남편, 자녀, 부모, 시부모로, 교육기관은 여성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학교로, 카운슬링센터는 전문지원센터(여성새일센터, 고용지원센터, 일자리센터)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많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4]의 진로준비행동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다.

4. Data Collection and Analytical Method

4.1.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발전센터, 직업학교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거나 구직등록을 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법을 이용하고 편의표집을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27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적으로 25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내용이 부실한 25부를 제외하고 총 22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4.2. Analytical Method

본 연구는 Spss Statistics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Cronbach's α 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에 대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IV. Analytical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경력단절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총 227명 중 연령은 40대가 87명(38.3%), 50대 69명(30.4%), 30대 40명(17.6%), 20대 21명(9.3%), 60대 이상이 10명(4.4%), 순으로 40대와 50대가 연구대상자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졸이 91명(40.1%), 전문대졸 65명(28.6%), 고졸이하가 48명(21.2%), 대학원 이상이 23명(10.1%)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187명(82.4%), 미혼 27명(11.9%), 기타 13명(5.7%)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기간은 10년 이상이 85명(37.5%), 3년 미만이 48명(21.1%), 5년 이상~10년 미만 42명(18.5%), 3년 이상~5년 미만 36명(15.9%), 취업 경험 없음이 16명(7.0%)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 참여횟수는 1회가 144명(63.4%)으로 가장 많았고, 2회 29명(12.8%), 3회 이상이 21명(9.3%), 참여한 적 없음이 33명(14.5%)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n=227)

Division		Frequency (persons)	Ratio (%)
Age	20s	21	9.3
	30s	40	17.6
	40s	87	38.3
	50s	69	30.4
	60s over	10	4.4
academic background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48	21.2
	college graduate	65	28.6
	university	91	40.1
	graduate or higher	23	10.1
marital status	single	27	11.9
	married	187	82.4
	the others	13	5.7
Career interrupted period	less than 3 years	48	21.1
	3 to 5 years	36	15.9
	5 to 10 years	42	18.5
	more than 10 years	85	37.5
	no employment	16	7.0
Training of times	none	33	14.5
	1 time	144	63.4
	2 time	29	12.8
	more than 3 time	21	9.3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여 경력단절여성이 인식하는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각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 진

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상관계수는 <Table 2>와 같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변인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r=.384, p<.01$),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r=.561, p<.01$)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며,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준을 높다고 인식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 Variables Cross Correlation

Variable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ocial support	1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405**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84**	.561**	1

* $p<.05$, ** $p<.01$, *** $p<.001$

3. Verification of research problem

3.1.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able 3>은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를 독립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의 진입과 탈락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검토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가 $\beta=.403, p<.001$ 로 나타나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는 유의수준 하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의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단계적 선형회귀분석 결과 Durbin-Watson=1.698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공차한계 값이 0.1이상(1.000), VIF값이 10이하(1.000)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F값은 43.636, $p<.001$ 으로서 회귀 모형으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β	T-value	Tolerance	VIF	P-valu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motional support	.403	6.606	1.000	1.000	.000***
	evaluation support	-.181	-1.029	.121	8.289	.305
	informational support	-.053	-.364	.176	5.682	.716
	material support	-.037	-.236	.151	6.614	.814
R=.403, R ² =.162, F=43.636*** Durbin-Watson=1.698						

*p<.05. **p<.01, ***p<.001

Table 4.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β	T-value	Tolerance	VIF	P-valu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oal setting	.356	3.873***	.351	2.852	.000***
	problem solving	.062	.705	.383	2.613	.481
	Job information	.252	2.734**	.351	2.852	.007**
	Future plan	.078	1.143	.633	1.580	.251
	Self-assessment	.102	1.082	.335	2.989	.280
R=.579, R ² =.335, F=56.378*** Durbin-Watson=1.604						

*p<.05. **p<.01, ***p<.001

3.2.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able 4>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직업정보, 목표설정, 문제해결, 미래계획, 자기평가를 독립변수로, 진로준비행동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의 진입과 탈락을 단계별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설정은 $\beta = .356$, $p < .001$, 직업정보는 $\beta = .252$, $p < .01$ 으로 나타나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설정과 직업정보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수준 하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설정과 직업정보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단계적 선형회귀분석 결과 Durbin-Watson=1.604로 나타났다. 이 값은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공차한계 값이 0.1이상(.351), VIF가 10이하(2.852)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F값은 56.378($p < .001$)로서 회귀모형으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3.3.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과 진로준비행동

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33]가 개발한 3단계 검증방법인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Table 5>이다. 1단계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2단계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해야 한다. 3단계는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와 매개변수인 진로준비행동을 동시 투입하였을 경우에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미 하지 않은 완전매개이거나, 최소 2단계의 회귀계수 보다 감소하는 부분매개이어야 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234$, $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285$, $p < .001$).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624$, $p < .001$). 또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동시에 회귀시킨 결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 ($\beta = .139$, $p < .01$)이 줄어들었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		Step	β	T-value	P-value	R ²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Step 1 Independent variable → Parameter	.234	6.651	.000***	.164
Social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tep 2 Independent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285	6.240	.000***	.148
Social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tep 3 Independent variable / Parameter → Dependent variable	.139	3.164	.002**	.345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624	8.206	.000***	

*p<.05. **p<.01, ***p<.001

V. Conclusions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발전센터, 직업학교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거나 구직등록을 한 227명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여성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도 양(+)의 상관관계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지지만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즉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자신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정서적 지지[14]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적극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11][12][34]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물질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난 [11]의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로 30~40대가 연구대상인 타 연구에 반해 본 연구는 40~50대가 연구대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생애주기에 따른 차이로 인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자녀의 양육과 돌봄이 주요 발달과제 시기인 30

대는 보육이나 가사업무 지원 등의 직접적인 도움인 물질적 지지를 선호하는 것에 반해 40~50대는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빈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으로 정체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심리적인 측면 즉 자신이 사랑받고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정서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진로준비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향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취업지원서비스를 설계 시 연령이 중요한 변수임을 고려하여 연령대에 따라 차등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목표설정과 직업정보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4][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목표설정과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와 세부조건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뜻하는 직업정보 수준이 상승할 때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넷째,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사이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예측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준거변인인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어진 과제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상승할 때 진로준비행동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

을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심리적인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정서적 지지와,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신감을 뜻하는 목표설정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여성재로일하기센터 등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지도 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서류작성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심리적 측면을 더 중시해야 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설계 시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이해 부문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의 여성 취업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여 자기보고방식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전체 경력단절 여성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을 통해 다각도의 분석방법으로 심층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http://kosis.go.kr>
- [2] S. J. Lee, "An analysis on the Reasons for Hiring the Elderly: Focusing on Survey result of the Company Owners and Personnel Managers," Chosun University, 2014.
- [3] H. J. Yoo, "The Influences of Career Interrupted Women's Perceived Career Barriers on Employabilit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Network," Published biyearly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inking Development, Vol. 11, No. 1, pp. 155-178, 2015.
- [4] H. J. Lee, "The Effects of Perceived career barrier of Women whose career were interrupted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wangwoon University, 2010.
- [5] B. W. Kim,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7.
- [6] S. J. Lee, and S. O. Kweon,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recogni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2, No. 9, pp. 125-132, 2017.
- [7] Y. J. Choi, and E. J. Son, "The effects of spouse support and career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career-interrupted women: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21, No. 4, pp. 587-606, 2016.
- [8] M. R. Kim, "The Theory of a Conceptual Definition an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the Methodological Issues of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Korean Academy Of Clinical Social Work, Vol. 2, No. 1, pp. 99-121, 2005.
- [9] S. J. Sin, and I. H. Lee, "Structural analysis of the Social Support, Career Capabil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for the Reemployme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8, pp. 422-432, 2018.
- [10] S. B. Lee and J. H. Lee,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Unemployed Married Wome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29, No. 3, pp. 187-208, 2010.
- [11] H. J. Kim, S. H. Lee, and S. Y. Cheon, "The Mediating Effects of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the Career Preparation that the Career Interrupted Women's Perceive," Locality and Globality: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42, No. 1, pp. 153-174, 2018.
- [12] A. S. Kim, and J. L. Ja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Career Interrupted Women :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Abil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23, No. 3, pp. 525-548, 2018.
- [13] E. J. Im, "A Study on the Intermediation of the Self-Effectiv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Recogni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areer Short Women," Korea University, 2012.
- [14] J. Y. Park,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ongik University, 2006.
- [15] S. Y. Kweon, and Y. J. Lee, "Determinants of Women's Career Breakdown and Reentry into the Labor Market," Journal of business economics, Vol. 39, No. 1, pp. 45-57, 2010.
- [16] N. E. Betz, "Implications of the null environment hypothesis for women's career development and for counseling Psychology," Counseling Psychologist, Vol. 17, No. 1, pp. 136-144, 1989.
- [17] J. S. House,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Addison-Wesley Pub. Co.(Reading. Mass.)," 1985.
- [18] J. W. Park,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cale," Yonsei University, 1985.
- [19] K. H. Seo, "The influence of career-interrupted women'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adaptability: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4.
- [20] M. C. Kwang,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Adaptability in Career-Interrupted Married Women: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yungsoo University, 2014.
- [21]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 84, No. 1, pp. 191-215, 1977.
- [22] J. E. Sim,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career barriers in the adolescents out of school," Soonchunhyang University, 2017.

- [23] G. H. Lee, and H. J. Lee,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2, No. 1, pp. 127-136, 2000.
- [24] H. J. So, "A study on Effe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by Using Cinema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Adolescent1," Dankook University, 2011.
- [25] K. H. Seo, Y. J. Kwak, and J. H. Sim,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Adaptation of Career-interrupted Wome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5, No. 4, pp. 57-88, 2015.
- [26] H. J. Lee, and G. M. Kim, "The Effects of Perceived career barrier of Women whose career were interrupted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1, No. 2, pp. 623-640, 2010.
- [27] Y. H. Sin, and D. M. Lee,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Levels of Re-entry at Labor Market of Career Interrupted Woman by Social Suppor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8, No. 7, pp. 138-152, 2018.
- [28] S. H. Lee, "The Influence of Hope and Career Barrier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8.
- [29] J. H. Yang, and B. W. Kim,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Separa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Female College Studen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1, No. 2, pp. 57-71, 2008.
- [30] K. M. Taylor, and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22, pp. 63-81, 1983.
- [31] M. Y.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Women Unemploye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Job Aspiration," *Koreatech University*, 2005.
- [32] H. G. Kim, "Concern Analysis according to Gender and School Year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Maturity Inventor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eonju University*, 2003.
- [33]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 [34] M. S. Choi, "The Influence of Ego-Identity,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late Adolescence,"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Authors



Sook-Ja Lee received the Ph.D.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from Chosun University. DR, Le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ngwo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ractice, youth career, female and old-aged employment etc.